



# 한국인의 삶과 문학

문학의 이해와 감상





1. 문학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2. 문학의 정의를 둘러싼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다.



# INDEX

문학 개념의 변천사  
문학이란 무엇인가



# INDEX

문학 개념의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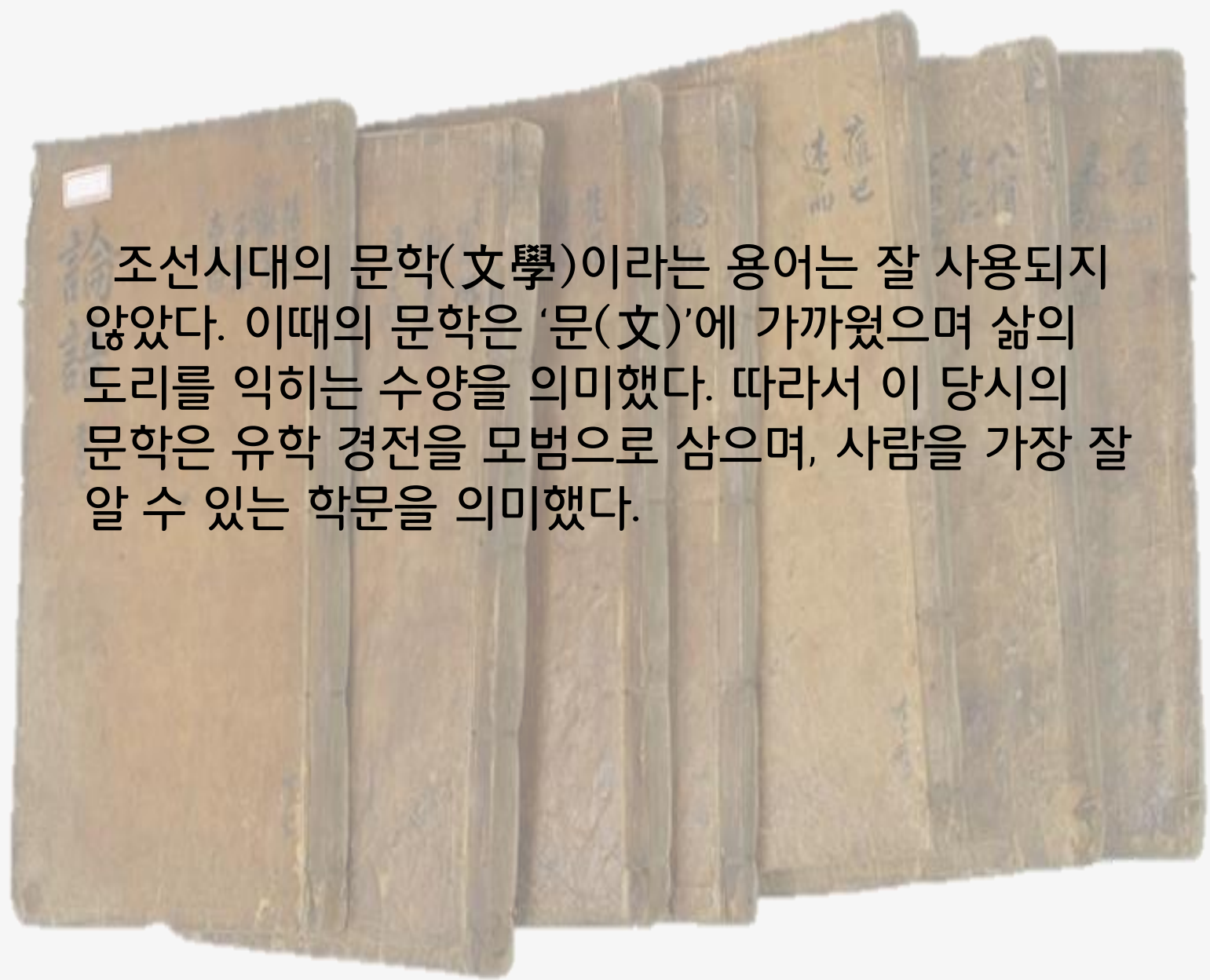


사서삼경

## 조선시대 문학

인재등용

조선시대의 문학(文學)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이때의 문학은 '문(文)'에 가까웠으며 삶의 도리를 익히는 수양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 당시의 문학은 유학 경전을 모범으로 삼으며,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학문을 의미했다.





과거에도 ‘소설’이라는 용어, ‘시’라는 장르는 존재했으나, 그 기능이 오늘날의 의미와는 다르다. 이규보의 ‘백운소설’은 논설, 시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사, 시조’ 등의 시가 장르에서도 개인의 감정보다는 유교의 덕목, 인격수양 등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서도 그러하다.

19c

전통적인 '문 (文)'의 개념이 변화



루쉰

“ 예전에 우리가 ‘문(文)’ 이라 불렀으나 조금씩 새 것을 좇는 사람들은 ‘문학’이라 부른다. 그것은 일본에서 수입된, 영어 Literature의 역어이다. ”

“ 문학은 리터래처의 역어이다 ”



이광수





신문과 잡지가 보급되며 서적의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면서 문학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됨



누가 능히此를 否認하지오라는 한편 其類를 總括하면 十五 六世紀경 「文藝復興」의 有樣을 發見할지라. 然則 이 文藝復興이 無하여 人民이 其思想의 自由를 自覺의 아니하였던을 어찌 如此한 初期이 有하였으며, 當실의 文明을 有하였으리요, 然則 當실의 文明을 否定하면 以無可論이 어니와, 然일 此를 認定하여, 此를 選擇하면 文藝復興의 功을 認定할지오. 또 近世文明의 一大 刺激의는 無天動地하는 佛國大革命의 活劇은 演出한이 佛國革新文學者—루소(Rousseau)의 一校筆의 力이 아니냐, 또 北美南北戰爭時 北部人民의 以誠愛國하는 情을 動지 하여 激戰 數年에 多數 奴隸로 하여금 自由에 歡樂케 한者 스로, 로스미氏 등 文學者의 力이 아닌가, 大抵, 當實의 財가 金庫에 溢하여, 百萬의 金이 國內에 露列하여, 軍艦, 鐵, 劍戟이 數科 無雙한을 其 國民의 理想이 不圖하며, 思想이 卓著하며, 何用이 有하리요, 然則 一國의 興亡盛衰와 富強貧弱은 全히 其國民의 理想과 思想如何에 在하나니, 其理想과 思想을 支配하는者—學校教育에 有하나 알지나, 學校에서는 다만 實나 學할지요, 其外는 不得하리라 하노라, 然則 何호, 曰 「文學이 나다」.

(一九一〇年 三月・大韓國學報 第十一號 所載)

文學이란 何호

新舊意義의 相異

同一한 語도 地方과 時代를 隨하여 相異한 意義를 취함이 多하다. 가령, 朕이나 卿 같은 語도 古代에는 親, 舊과 同一한 意이니, 後世에는 帝王과 臣下間에 專用하게 되었나니, 此는 時代를 隨하여 語意가 變遷한이오, 土著 하면 朝鮮서는 文을 修한者의 稱呼라함, 日本 古代에는 武將, 修하는者의 尊稱이 되었나니, 此는 地方을 隨하여 相異한이로, 고로, 語의 外形이 同一하다 하되, 其 意義까지 同한 줄로 思하면 誤解의 境에 多하니, 當실 朝鮮에서는 此等 語意의 誤解가 頗多하나니, 如此時代之 地方을 隨하는 外에 常用과 學術을 隨하여도 相異하나니, 가령 法律이라는 語는 在來로 使用하는 바이로되, 法律上 法律이라는 語와는 大相不同하다. 假用 法律이라 하면, 國家가 人民으로 하여금 強制的으로 遵守케 하는 規則이라는 意이니와, 法律上 法律이라 하면, 國家를 隨하여 多少 差異가 有하되 法部의 議決을 經하고, 主權者의 裁可를 受하여 內閣員의

圓圖로 公報한 例을 稱함이나, 常用과 學術用의 相異가 大지 아니하도, 如此한 文學이라는 語義도 在來로 使用하던 舊하는 相異하다. 當실, 所謂 文學이라 함은 西洋人이 使用하는 文學이라는 語義를 취함이니, 西洋의 Literature 또는 literary composition 라는 語를 文學이라는 語로 翻譯하였다 함이 適當하다. 고로, 文學이라는 語는 在來의 文學으로의 文學이 아니요, 西洋語에 文學이라는 語義를 授하는者로와 文學이라 할지다. 전세로 言하였거니와, 如此한 語同異異한 新語가 多하니 注意할바 이니다.

文學의 定義

文學이란 그範圍가 廣大하고 內容이 극히 濶然하여 諸般科學과 如히 一言으로 概括 定義를 下하기 困難하며, 微細한 部分 하나나 點正하게 言하거면 不能하다 하리오다. 然이나, 既히 一學이라 稱하는지라, 全然 定義가 無지 못하리니 文學 批評家들은 흔히 如左히 定義한다.

文學이란 特정한 形式下에 人의 感情과 感情을 發表한 者를 謂함이니라.

此의 特정한 形式이라 함은 二가 有하니, 一은 文字로 記錄함을 云함이니, 口頭傳授는 文學이라고 稱키 不能하고, 文字로 記錄된 後에야 비로소 文學이라 할 수 有하

이광수 '문학이란 하오' '정(情)'의 문학

근대의 문학 개념

‘문학이란 하오’에서 이광수는 문학 개념을 정의 분자를 포함한 문장이라고 한정한다. 이러한 이광수의 문학적 태도는 일본에서 습득한 서구 지식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는 문의 개념을 새롭게 전환시켜 놓는다.



리터래처(Literature)란 무엇인가?





리터래처(Literature)란 무엇인가?

Literra를 어근으로 하는 라틴어 Litterratura에서 파생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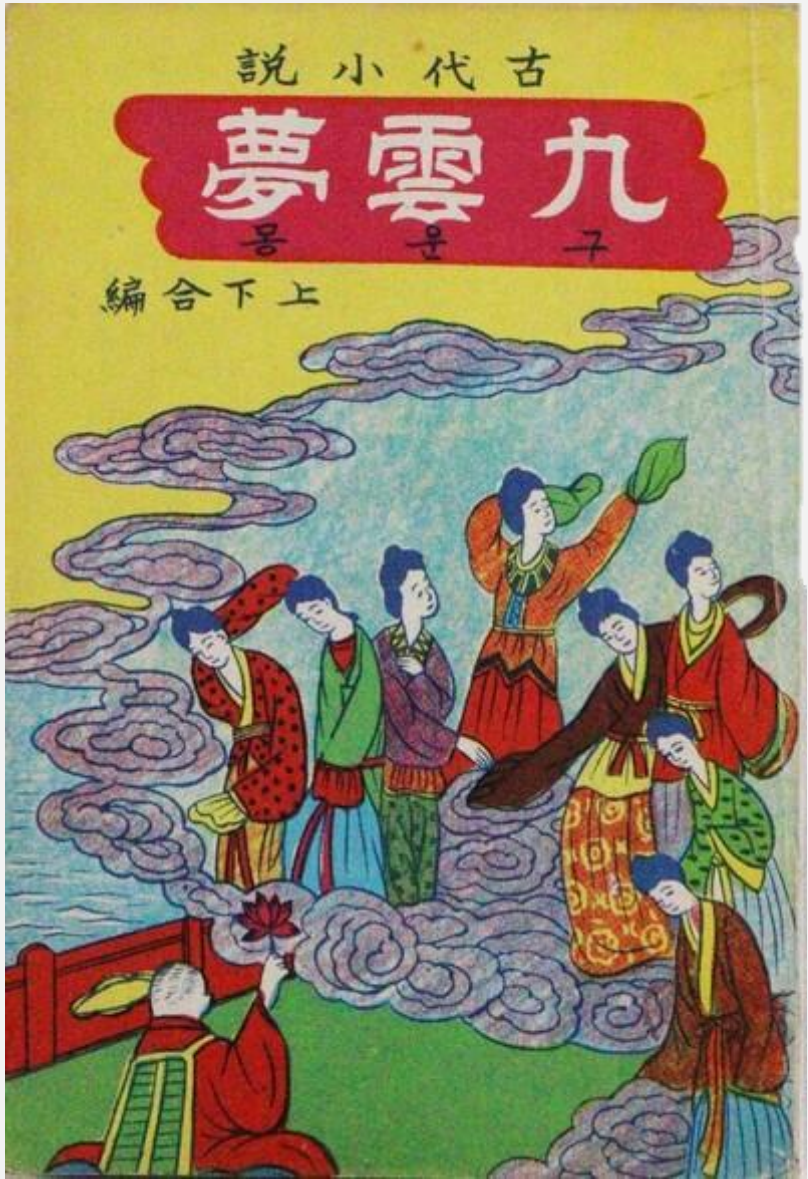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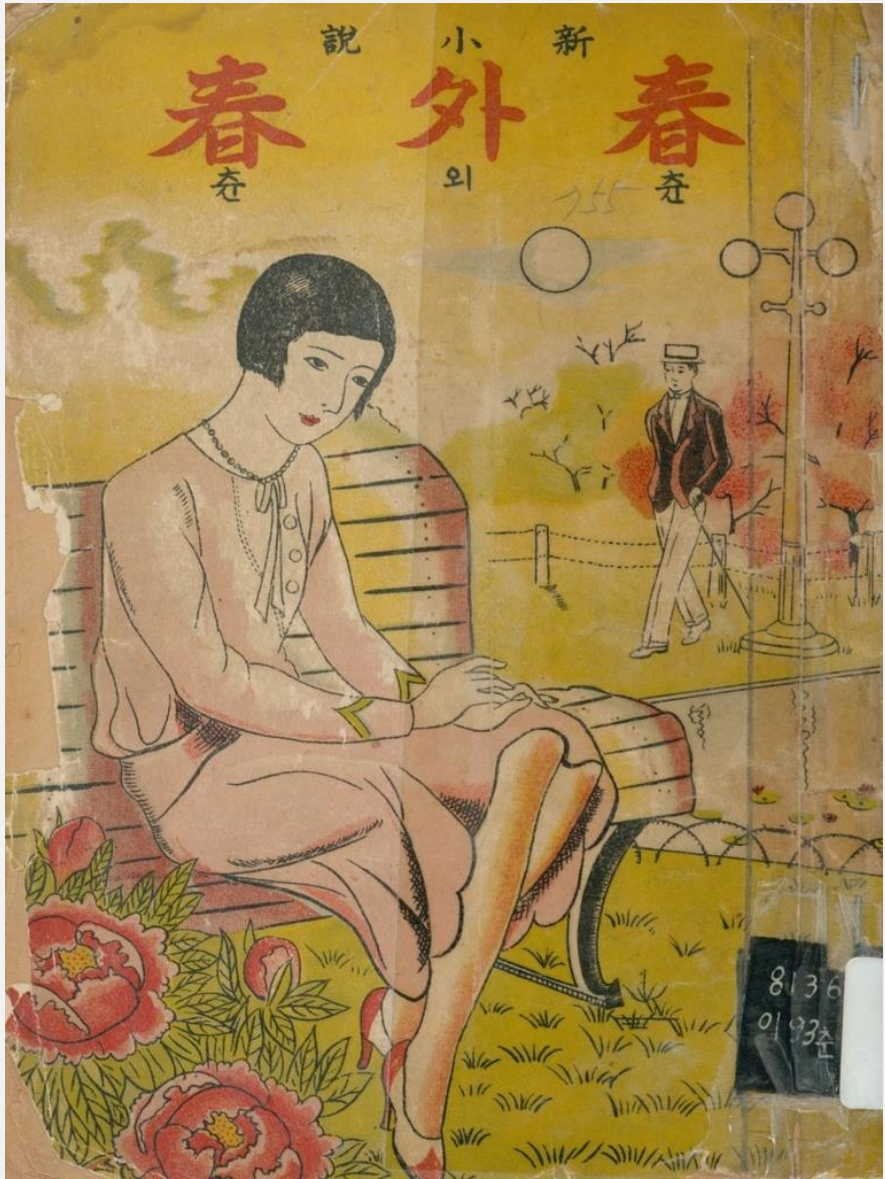




새로운 의미의 '문학' 개념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새로운 문학 개념의 등장 배경>

-서양문학의 역사, 이론, 해석을 자국 문학에 대한 인식 준거로 원용

→ 재래적인 문학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근대소설을 창출을 기획

→ 조선 문학에 대한 폄하

→ 문학의 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

## 이광수, &lt;무정&gt;

경성학교 영어 교사 이형식은 오후 두시 사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려쫓이는 유월 별에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김장로의 딸 선형(善馨)이가明年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하여 영어를 준비할 차로 이형식을 매일 한 시간씩 가정교사로 고빙하여 오늘 오후 세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음이라. 이형식은 아직 독신이라, 남의 여자와 가까이 교제하여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순결한 청년이 흔히 그러한 모양으로 젊은 여자를 대하면 자연 수줍은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확확 달며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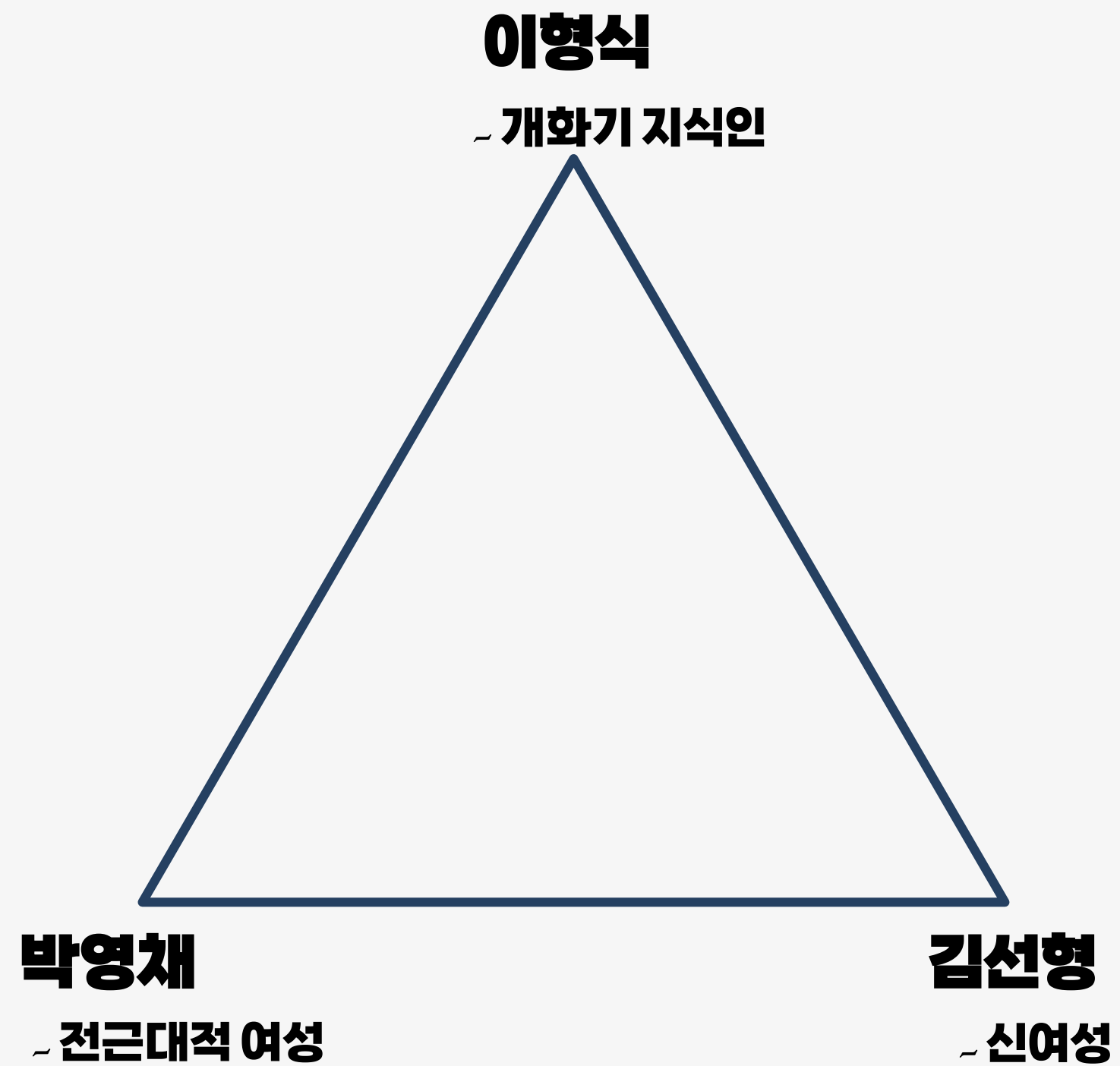
영채는 형식이가 일찍 취처 아니했단 노파의 말을 듣고 놀라서 형식을 보았다. 그러고 그 장가 아니 든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 이유가 자기에게 무슨 상관이 없는가 하였다. 이전 부친께서 농담삼아, "너 형식의 아내 될래?"하던 말을 생각하였다. 그때에 어린 생각에도 형식은 참 좋은 사람이거니 하고 사랑에 와 있던 여러 사람 중에도 특별히 형식에게 정이 들었었다. 이래 칠팔 년간에 한강에 뜬 버들잎 모양으로 갖은 고락을 다 겪으며 천애지각으로 표류하면서도 일찍 형식을 잊어 본 적이 없었다.



### 이광수, <무정>

‘선형과 나와 약혼한다’는 말은 말만 들어도 기뻐다. 영채가 마침 죽은 것이 다행이다 하는 생각까지 난다. 게다가 ‘미국 유학!’ 형식의 마음이 아니 끌리고 어찌하랴. 사랑하던 미인과 일생에 원하던 서양 유학!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형식의 마음을 끌 만하거든, 하물며 둘을 다! 형식의 마음속에는 ‘내게 큰 복이 돌아왔구’ 하는 소리가 아니 발할 수가 없다.

이광수, <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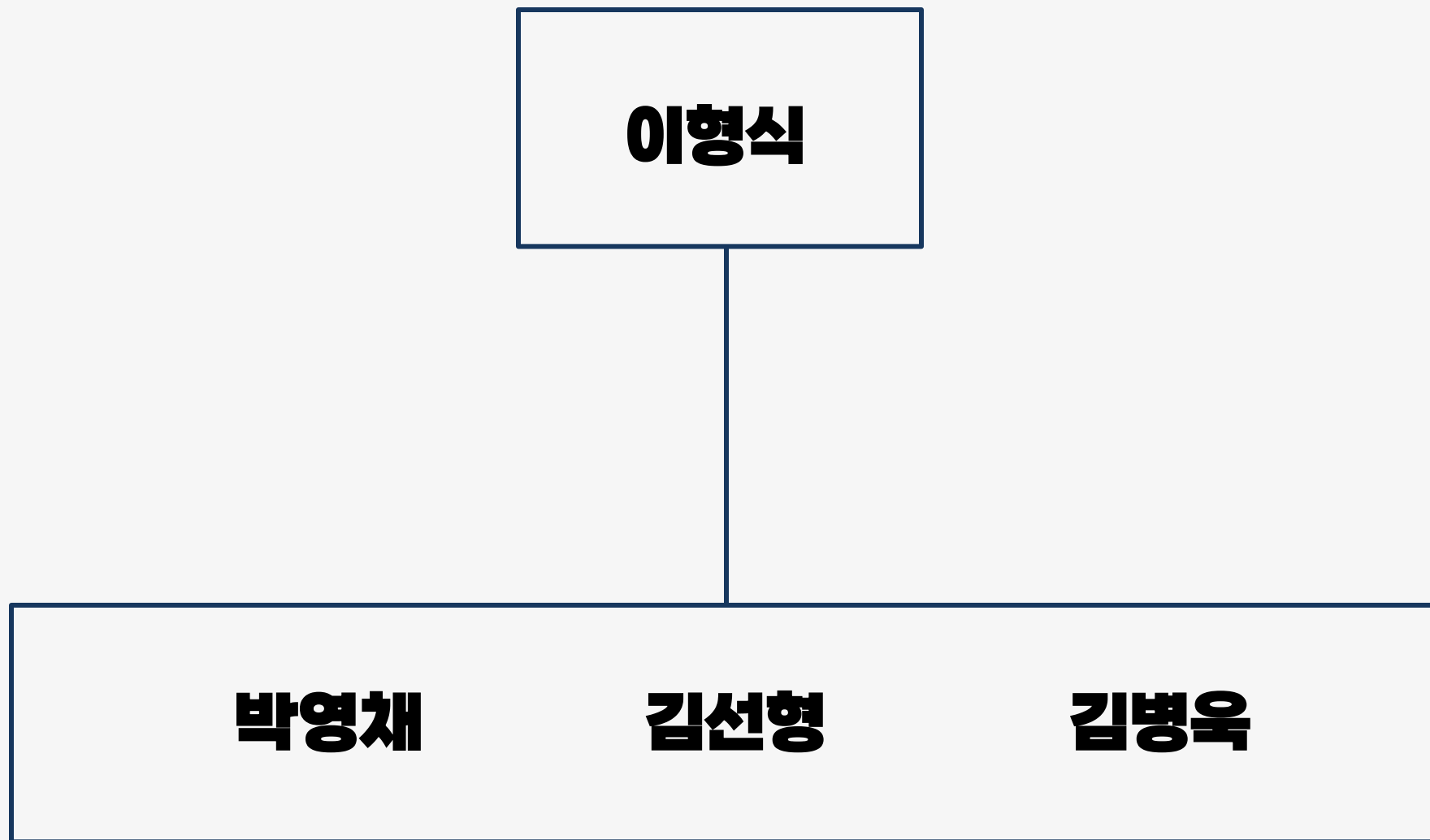


## 이광수, &lt;무정&gt;

영채는 비로소 넓은 세상에 뛰어나왔다. 더구나 기차 속에서 병욱을 만나며 자기가 지금껏 유일한 세상으로 알아 오던 세상이 기실 보잘것없는 허깨비에 지나지 못하는 것과, 인생에는 자유롭고 즐거운 넓은 세상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에 비로소 영채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젊은 사람이 되고, 젊고 어여쁜 여자가 된 것이라. 영채의 가슴에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의 피가 끓기 시작하고 사람의 정이 타기를 시작한 다. 영채는 자기의 마음이 전혀 변하여진 것을 생각한다. 마치 나서부터 어둡고 좁은 옥 속에서 지내다가 처음 햇빛 있고, 바람 불고, 꽃 피고, 새 우는 세상에 나온 것 같다.

“여러분의 조상은 결코 여러분과 같이 못생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할 때에 과연 지금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들이다 하던 생각이 난다. 영채는 그 말과 형식의 말에 공통한 점이 있는 듯이 생각하였다. 그러고 한번 더 형식을 보았다. 형식은, “웁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형식은 입을 꼭 다문다. 세 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 (중략) “우리가 하지요!” 하는 대답이 기약하지 아니하고 세 처녀의 입에서 떨어진다. 네 사람의 눈앞에는 불길이 번쩍하는 듯하였다.

이광수, <무정>





### <문학(Literature) 개념 정립의 한계>

- 1) 과거 문학과 단절
- 2) 이념의 맥락이 고립됨(토착적 이념의 부재)
- 3) 새로운 문학론을 뒷받침할 문학작품의 부재

#### 임화, <이식문화론>

“신문학이 서구적인 문학 장르(구체적으로는 자유시와 현대소설)를 채용하면서부터 형성되고, 문학사의 모든 시대가 외국문학의 자극과 영향과 모방으로 일관되었다 하여 과언이 아닐 만큼 신문학사란 이식문화(移植文化)의 역사다.”(<신문학사의 방법>)



# 국민의 삶과 문학

문학의 이해와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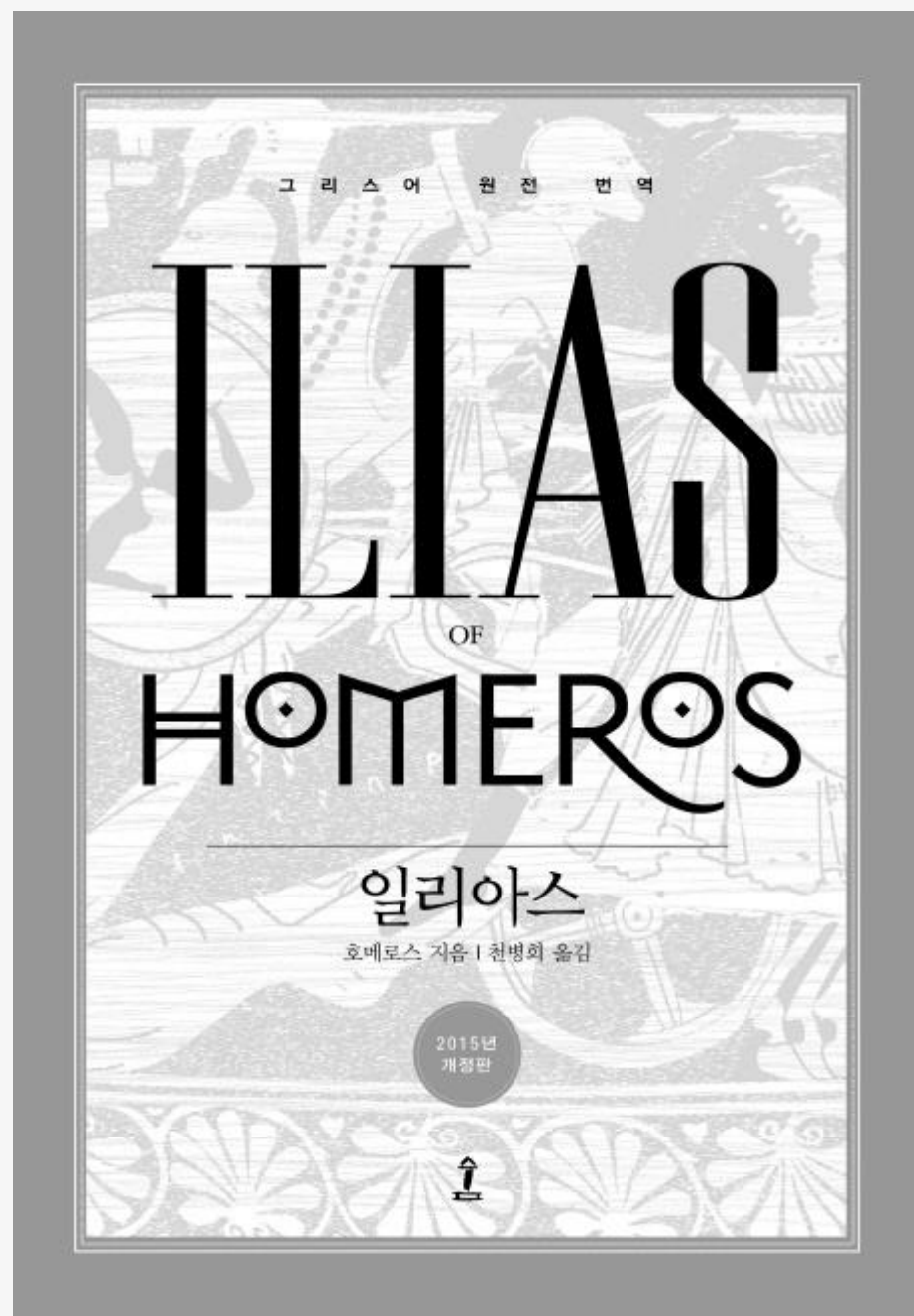


# INDEX

문학이란 무엇인가



픽션이라는 의미에서 ‘상상적인 글’



‘Histoire’





대안적 현실에 대한 탐구, 가능성의 영역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보이지 않는 현실 -> 일종의 허구

넓게는 예술, 좁게는 문학은 바로 우리의 경험 세계  
너머를 상상하고 그것을 가시화하는 영역

### 언어의 특이한 사용

-로만 야콥슨, '일상언어에 가한 일종의 조직폭력'

-러시아 형식주의자, '낯설게 하기'





### 언어의 특이한 사용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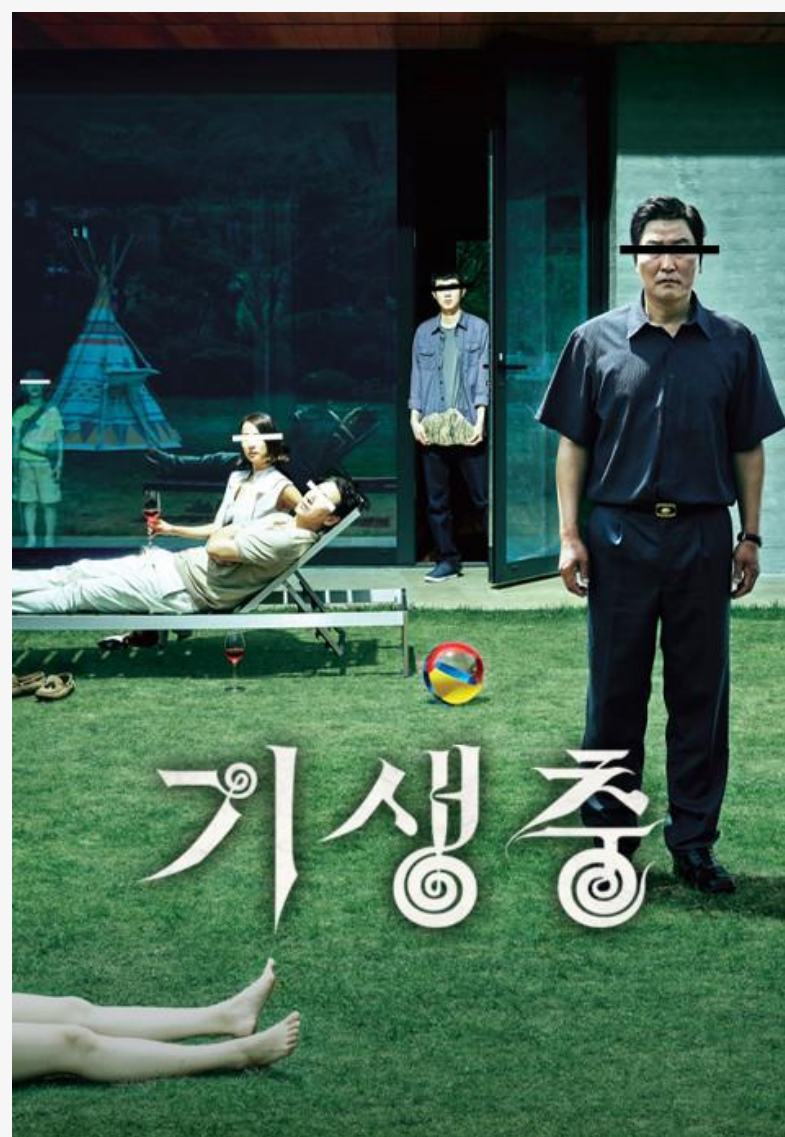
-김춘수, <꽃>의 일부





### 작가의 천재적 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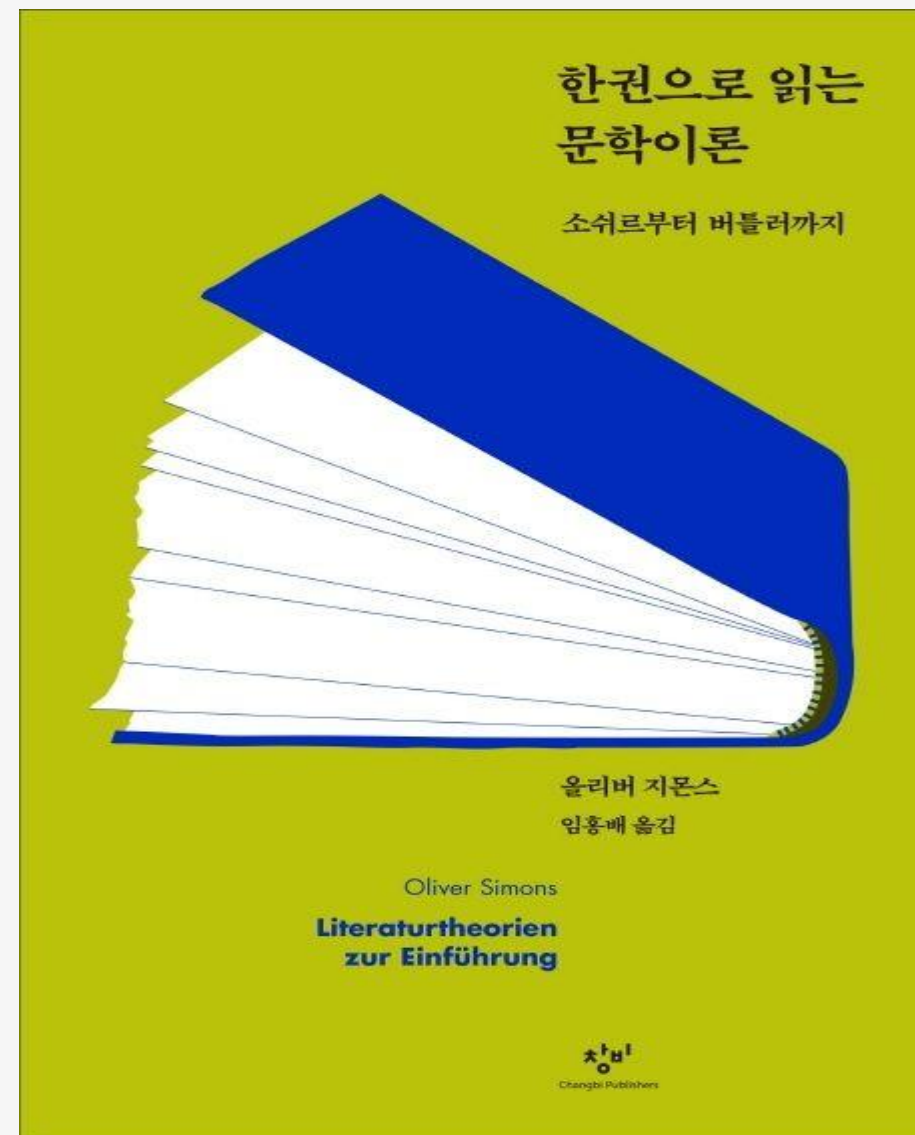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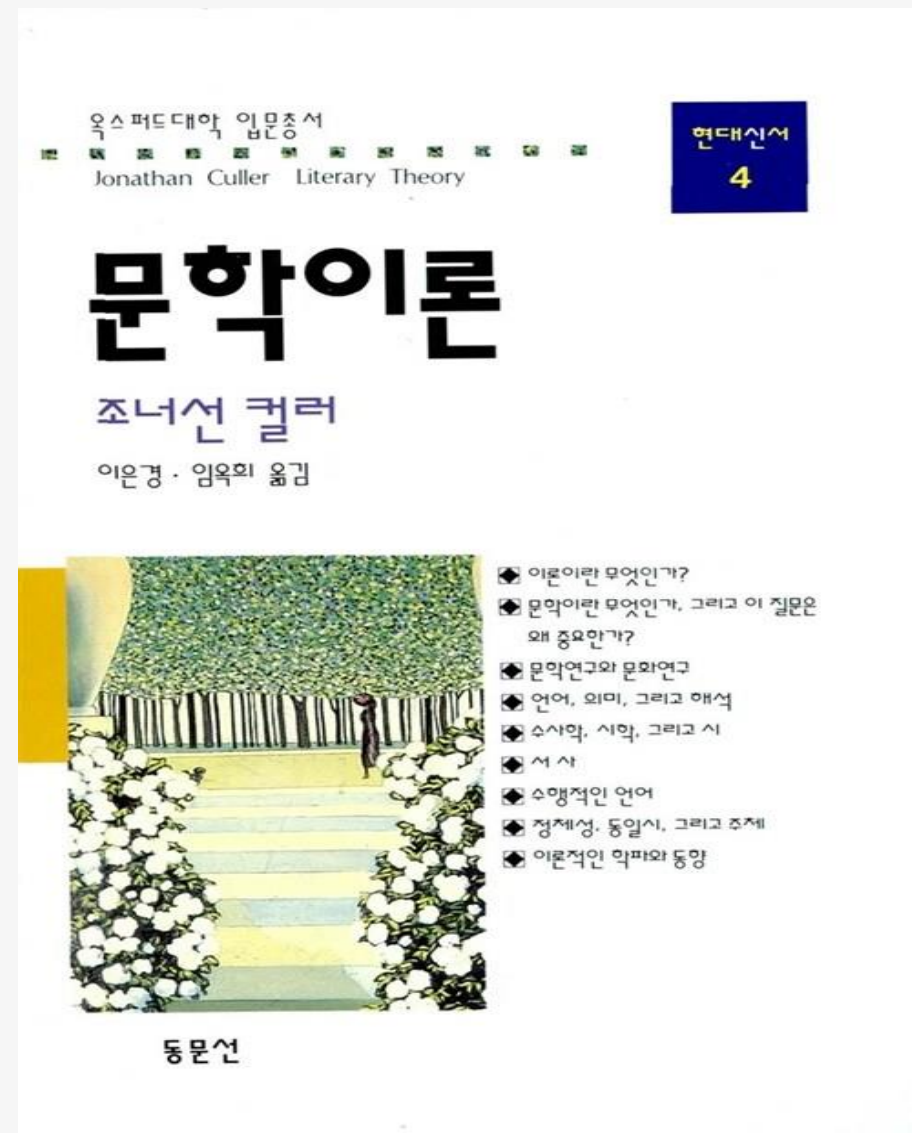
- 작가: 불멸의 작품을 자신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창조하는 주체
- 독자: 감정이입을 통해 작가의 경험을 추체험하는 자





### 학문의 대상

- 이때 문학은 창조적 산물과 달리 과학적 방법이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  
→대안: 문예학, 시학 등의 용어



### 이데올로기의 산물

-사회권력의 유지와 재생산에 관여하는 하나의 문화적 산물

#### 1) I.A 리처즈 <실천적 비평>에서의 사례

-제목과 작가의 이름을 비밀로 한 채, 학생들에게 제시

-학생들이 학습했던 문학사적 지식과는 상이한 평가를 내림

#### 2) 근대국가에서의 문학, 친일 문학

-근대국가에서의 문학: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

-친일 문학: 내선일체, 전쟁 동원을 위한 문학들이 창작

# 벌써?

-단편시집 -





### 해석의 대상

-무엇이 문학의 원인이고 무엇이 문학의 결과인가를 묻는 행위



- 허시, 해석학  
-타당한 해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작가의 의미가 허용하는 '전형적인 기대와 개연성들의 체계'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
- 가다머, 해석학  
-작품이 다른 문화/사회적 맥락으로 넘어감에 따라 그 작품의 작가나 동시대 독자들이 아마도 결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의미들이 채집될 수 있다.